

동아 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K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동아는 지금

124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since 1946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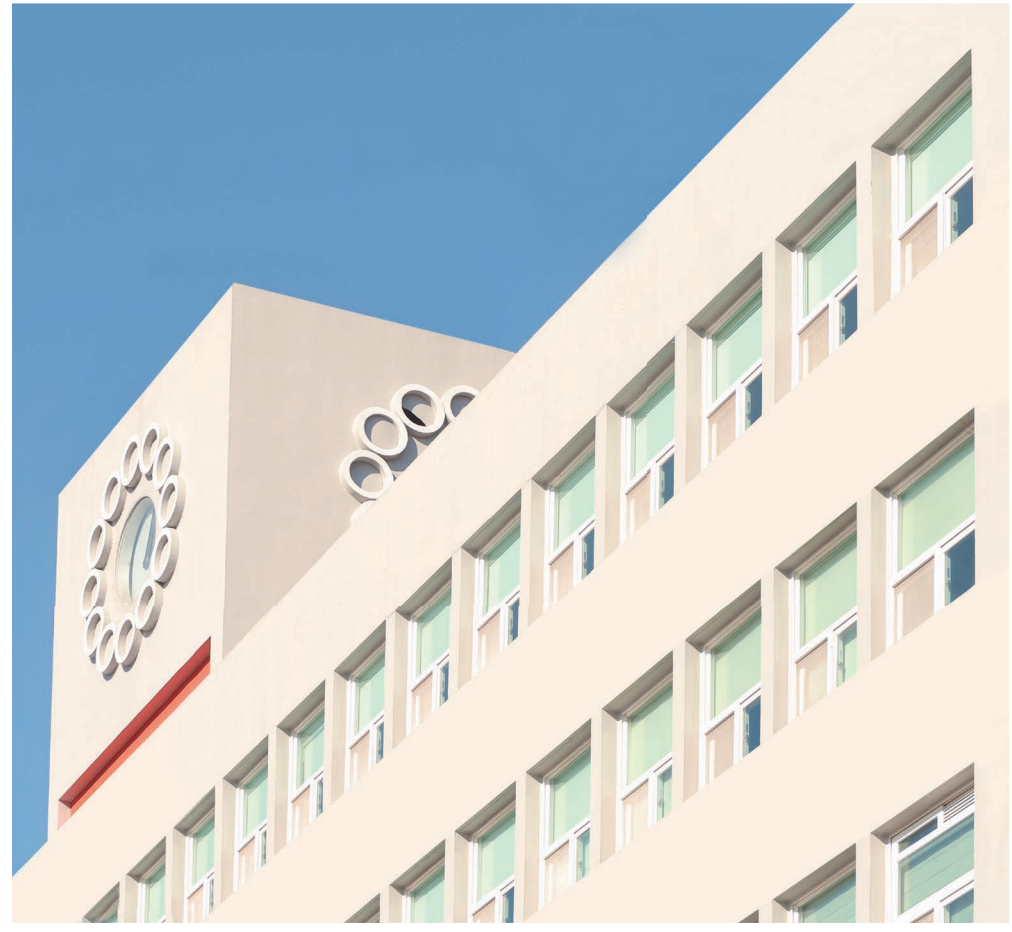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4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교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24번째 소식지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

1981년 문을 연 한림도서관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층 로비의 북갤러리와 창의공간, 스마트존은 동아인을 위한 복합 휴게 공간으로,
3층의 열람실과 그룹스터디실은 학습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자유로운 탐구와 창의적 경험,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04 ISSUE FOCUS

- 04 동아대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 06 RISE 사업의 핵심, 기업협업센터



10 ESSAY

- 10 동아가 스며드는 시간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24호)

발행일 2025년 2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대훈 051)898-0330

동이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5 VOL. 124



12 HOT NEWS

- 12 개교 78주년 기념식 개최
- 13 개교 78주년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글로벌 대학 도약 위한 교원인사 혁신
- 14 '글로벌 인재관' 부민캠퍼스에 개관
동아대,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강화
- 15 박광웅·성영진 동문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정부지원 연구비 지원사업 잇달아 선정
- 16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정
2024년 참여기업 교류회 성황리 개최
- 17 학교·학과 차원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 적극 펼쳐
- 18 진로-취업 지원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
- 19 로스쿨 검사 4명 로클럭 3명 합격 쾌거
명사 초청 특강
- 20 동아대 교수들 활발한 연구활동 펼쳐
대학원생들 눈에 띄는 연구로 수상 영광 안아
- 21 동아대 학생들 각종 대회 수상으로 학교 명예 높여
- 22 전국 정상에 오른 '최강' 동아대 스포츠
- 23 수준높은 공연으로 부산 시민 문화 향유 기여



24 DONG-A PEOPLE

- 24 석당학술상의 두 주인공
간호학과 김지연 교수
생명자원산업학과 이진환 교수
- 26 글로벌 기업을 키우다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동윤 대표이사
- 28 부드러운 카리스마,
굳건한 원(ONE)팀을 만들다
야구부 이재현 감독 및 선수들



32 HAPPY DONATION

- 32 발전기금 기부뉴스
- 39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 42 DONG-A SNS

동이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이제 'L2M 플랫폼'에서 만나요 동아대학교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동아대학교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이하 밸브센터)가 수소 밸브 공인시험기관으로 거듭나 2024년 11월 L2M(Lab to Market) 플랫폼에 자리잡았다. 동아대의 '글로벌 대학' 사업 핵심이 될 L2M 플랫폼 및 밸브센터의 성과와 가능성을 짚어 본다.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선도적 자산·학 협력 모델 L2M Platform

연면적 4,600.96㎡에 지하1층~지상5층, 2개동으로 승학캠퍼스에 자리한 L2M 플랫폼은 밸브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자체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동아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 중이다.

추진 전략 01

밸브/관련 기계부품 특화 시험센터 육성

- KOLAS 국제공인 시험평가 지원
- 해외선급(DNV, ABS, LR 등), 해외 규격(ULM API 등)에 대한 공인인증시험 분야 확대

추진 전략 2

밸브/관련 기계부품 R&D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기반의 R&D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의 신뢰성 제고 및 비용적 요소 최소화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주요 실적

과제 수행

연구개발과제 누적금액 300 억원	기업지원 16 년간 339 개 기업	전국 단위 기업 지원 부산 44.0% 경기 12.8% 경남 21.1% 울산 4.0%
------------------------------	--------------------------------------	--

장비 및 KOLAS 시험 수행

최신장비 보유 약 20 기	시험수행 6 개 분야 18 개 항목	연차별 기업 수 계속 증가
--------------------------	--------------------------------------	-------------------

공인인증 취득 현황

전국 3개 초고압 수소가스용 기자재 관련 한국인증기구(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대학 최초이자 국내 유일 밸브분야 공인시험평가 체계 구비	• 국내 최초 미국선급협회(ABS) 승인 시험기관 • 한국선급(KR) 승인 시험기관
--	---------------------------------	---

혁신과 안전의 공존 국내 대학 최초의 수소 시험동 구축

- 국내 대학 최초 수소 시험동 구축
- 초고압 수소용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
- KS B ISO 19880-3 KOLAS 시험항목 추가

동아대 밸브센터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해 초고압 수소가스 반복가압누출 시험장비 △고압가스 기자재 실증 시험장비 △고압가스부품 회전력 강도 시험장치 등 장비를 확충해 밸브 신뢰성 시험 인프라를 조성했다. 또한 △제품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객관적 시험평가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에 기여하는 자립형 센터로 성장 △기업 수요와 기술 트렌드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 △자산·학 관계자들의 연구역량 향상 등 가시적 성과도 달성했다. 전보다 고도화된 L2M 플랫폼으로의 이전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연구 및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미래가 밝은 이유 일원화된 밸브 시험 인프라 구축

- 다양한 분야 기술지원 일원화
- 전문 학술 인력의 기업 계속 성장 지원
- 액화수소분야 기자재 시험 인프라 구축

범용밸브에서 초저온밸브에 이르기까지 관련 공인 시험기관 역할을 해온 동아대는 수소밸브 공인 시험평가의 자격도 추가했다. 이로써 대학 내 부설연구기관에서 공인인증시험과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동시에 학교의 전문시설과 학술적 인적자원을 심분 활용해 지역에서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액화수소분야에서 산학공동 연구기반을 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기획 중으로 부산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소비 활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관련 분야 차세대 인재양성, 글로벌대학30 및 RISE 사업을 지원하는 최전선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부산 경남지역에 전국 밸브업체의 약 40%가 집적돼 있는데 기업들이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받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동아대 밸브센터를 통해 지역 기업들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는 수익모델을 확보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밸브센터의 역할과 기대를 밝혔다.



밸브 화재 시험 측정 모습



극저온밸브 누출 실험 중인 모습



유량계수(CV) 측정 시험 모습



초고압 수소가스 반복가압누출 시험장비

항상 앞서나가 부산의 미래를 밝히다 RISE 사업의 핵심, 기업협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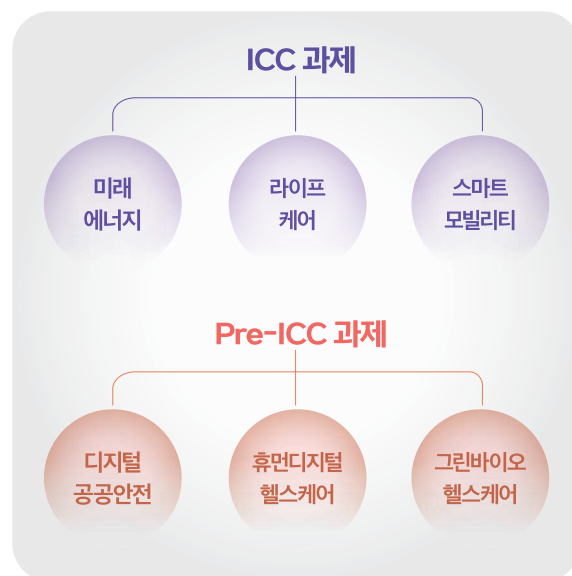
동아대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2024학년도 ICC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10년간 동남권에서 우수한 자산·학 협력 성과를 내고 동아 브랜드를 구축해 온 LINC사업이 종료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 기존 ICC와 Pre-ICC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의 가치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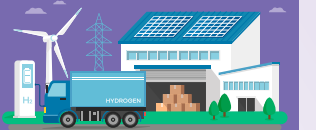
동아대 '2024학년도 ICC 성과포럼' 참석 내빈 기념촬영

지역에서 '경제 발전과 산업 생태계'를 논할 때, 흔히 '발전과 산업'에 방점을 찍곤 한다. 그러나 경제학(Economic)과 생태계(Ecosystem)가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접두사 οἶκος(eco)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지역 청년과 자산·학이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최정호, LINC 3.0)은 미래 신산업, 다품종소량생산 중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스마트모빌리티라는 3가지 ICC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디지털공공안전 △휴먼디지털헬스케어 △그린바이오헬스케어라는 3가지 Pre-ICC를 선정했다. 동아대는 RISE 체계에서도 동아대만의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특징점을 살리며, 지역의 산·학·연 협력 브랜드를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인재와 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동아가 쌓아올린 지역의 자산, ICC 과제



미래에너지 ICC

미래에너지 ICC는 클린에너지 분야 정부정책에 대응, 부산 소재 기업의 미래먹거리 아이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기자재 성능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센터 운영, R&D, 기업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체계화 등이 있다. 또한 밸브 분야 공용장비 활용 지원, 해외선급(KR, ABS 등) 및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인증 지원, 고기능성밸브 ICC 산학협력협의체를 운영한다.

미래에너지 ICC 주요 인프라



-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 에너지 분야 33개의 특화장비
-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센터



차세대 그린수소-암모니아 및 액화수소 저장/이송 기술혁신 세미나 기념촬영



미래에너지ICC 타 사업단 ICC와의 기술교류회 현장모습

라이프케어 ICC

라이프케어 ICC는 기능성식품, 의료가,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소재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접근법을 개발하는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화사업은 크게 스마트의류, 디지털 의료기의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하는 '디지털라이프케어'와 미래식품소재, 바이오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식이약·화장품케어'로 나뉜다. 관련 기업의 직무역량 강화, 패션업계의 바이오 헬스 소재 관심도 제고 등 성과를 거두었다.



라이프케어ICC 산학협력 협의체 진행모습

라이프케어 ICC 주요 인프라



-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지역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제조업체 지원
- 바이오헬스 플랫폼-푸드테크 강익공간,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웰니스 플랫폼-스포츠의학, 재활트레이닝, 재활 프로그램 지원
- 푸드바이오 이노베이션센터 라이프케어 바이오헬스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ICC

스마트 모빌리티 ICC는 D-N-A(Data-Network-Ai) 기술을 접목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채택됐다. AI 자율주행, 무인자동차를 활용해 시설물 관리, 농업 방제, 재난 구조 분야의 수익을 창출하고, 유무인 복합 스마트 신공항이 운영될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 클러스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모바일 기반 국가시설물 점검, IoT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플랫폼 협의를 통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ICC 주요 인프라

- 스마트모빌리티 시험센터
- 드론산업허브센터
-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AI 기술 체험룸, AI 교육장, 중앙서버룸



스마트모빌리티 ICC 기술교류회 기념촬영



스마트모빌리티 ICC 산학연협력 협의회 진행모습

기업협업센터 주요 업무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지원

- 혁신제품형: 과제당 3,000~5,000만 원
- 기술이전형: 과제당 3,000~5,000만 원
- 문제해결형: 최대 2,500만 원

장/단기 현장 맞춤형 T-Doctor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애로기술 해결
- 신제품 개발 과정 지원
- 경영·디자인 자문
- 기타 기술지원

현장 맞춤형 산업체 파견

- 기술지원
- 특허지원

기업 맞춤형 '시제품 밸류업' 지원

- ICC 관련 분야
- 시제품 및 금형 제작 등 재료비, 장비사용료
- 300~500만 원

재직자 직무교육 운영

- ICC 분야 기술 산업
- 조작·경영 매니지먼트



동아가 열 미래 Pre-ICC



디지털공공안전 Pre-ICC

디지털공공안전 Pre-ICC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복합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시를 실현하기 위해 선정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활용을 목표로 현장수요기반 BIM활용교육,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관리법 등을 강의하고 부산시설공단과 MOU 또한 체결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한 학생들의 원활한 취직, 산업체 기술력과 동아대 위상 제고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공공안전 Pre-ICC 산학연협력 협의회 기념촬영

그린바이오헬스케어 Pre-ICC

그린바이오헬스케어 Pre-ICC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스마트팜과 바이오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자원 최적화, Zero-waste, 고부가가치 작물 중심이며 타 대학과 탄소, 백신-미생물 관련 기술을 교류했다. 부산시의 기금을 받고 있는 많은 바이오헬스 유관기업이 부산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헬스케어 Pre-ICC 타사업단 ICC와의 기술교류회 단체사진

휴먼디지털헬스케어 Pre-ICC

휴먼디지털헬스케어 Pre-ICC는 부산시의 의료 헬스케어·ICT 융합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개인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부산시 7대 전략인 라이프케어-스마트헬스케어 적용분야 기술 고도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 실현을 위해 선정됐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빅데이터 활용, ICT 기반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주 골자로 하며 기업, 대학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구소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휴먼디지털헬스케어 Pre-ICC 브랜드발전위원회 진행모습

동아가 스며드는 시간

지금 아니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대학 캠퍼스 라이프.
그저 함께 열광하고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가을의 축제.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본다.



DONG-A

The time in which Dong-A permeates.

#어울리다 #알아가다 #즐기다

2024학년도 인터내셔널 데이

부민캠퍼스 중앙광장(11.05)

축제를 통해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 문화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국제교류과 통합 서포터즈 데일리(Daily)
- ☑ 24개국 출신 유학생
- ☑ 전통음식 부스
- ☑ 댄스팀
- ☑ 사물놀이
- ☑ 태권도
- ☑ 교환·교류 프로그램 안내 부스



#환호하다 #기대하다 #충전하다

동아대학교 가을축제 대동제

승학캠퍼스 뉴턴공원, 부민캠퍼스 일원(11.04~07)

누구나 대학축제의 낭만을 직접 겪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대동제에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신났어요.



- ☑ 동아리 공연
- ☑ 플로깅
- ☑ 초대가수 공연
- ☑ 푸드트럭
- ☑ 피크닉
- ☑ 소통
- ☑ 플라마켓
- ☑ 화합의장



석당학술상·공로상·특별상 등 시상 개교 78주년 기념식 개최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표창 행사

동아대 '개교 78주년 기념식'이 2024년 10월 31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개최됐다. 교직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동문,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자랑스러운 동아인상'과 '석당학술상', '공로상', '특별상', '올해의 직원상', '모범직원상', '30년 근속상', '20년 근속상' 등 부문에서 모두 56명이 표창을 받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은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과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학술상의 영광은 강지연(간호학과), 이진환(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부산권역 최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선정에 이바지한 오성용(의학과)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박은경(고고미술사학전공)·강명구(의학과) 교수와 최상석(의과대학 행정지원실) 직원은 30년 근속상을, 전효정(아동학과) 교수 등 15명의 교원과 김진수(관리과) 반장 등 4명의 직원은 20년 근속상을 받았으며, 전찬권(입학관리과)·김보람(교육혁신센터)·정기욱(정보전산과)·박창열(학예연구과)·강동일(관리과)·공미정(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 등 6명은 '모범직원상'을, 박지해(교육



'공로상'을 수상한 오성용 교수

'석당학술상'을 수상한 강지연·이진환 교수



'특별상'을 수상한 교원들



'특별상'을 수상한 직원들

대학원 행정지원실)·정보윤(학생복지과)·이석용(총무과)·정재현(건설과)·황혜린(공과대학 행정지원실) 등 5명은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2024년 글로벌대학 선정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특별상도 주어졌다. 권태정(도시공학과)·김성재(기계공학과)·신용택(조선해양공학과)·전미라·김오연(식품영양학과)·박현태(건강관리학과)·이석환(컴퓨터공학과)·노영진(국제무역학과)·최정호(조선해양공학과)·오지영(융합대학) 교수와 박철홍(기획과)·김진석(사업기획실)·박영후(학사관리과)·양신우(기획과)·권혜민(교무과)·박종현(총무과)·박현주(국제교류과)·권성길(기획과) 직원이 수상했다.

이 총장은 "글로벌대학 사업의 성공은 우리의 최대 도전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밤낮없이 매진해 준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정택 총동문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아인의 긍지와 모교의 명예를 높이시는 많은 동문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동아인 모두가 합심해 어떠한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권기철 변호사 개교 78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동아대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과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가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했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부산은행에 입행한 방성빈 은행장은 경영혁신본부 부장과 임원부속실 실장, 감사부 부장, 준법감시부 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경영전략그룹장, BNK금융지주 글로벌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내부통제 부서부터 전략·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두루 맡았다. 특히 경영기획본부장 재임 시절엔 해외사업을 담당해 중국의 두 번째 지점 개설을 주도했고 중국 내 외국은행 지점 최단기 인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2023년 4월, BNK부산은행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그는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사업을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권기철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 수석 졸업 후 일반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며 25년의 재직기간 중 15년 동안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면접 및 교육을 담당하는 등 부산법조계에서 형사재판 전문가로 통한다.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인 희망여행의 몽골희망원장대 단장(2019년)을 맡은 바 있으며, 지역대학에서 '헌법의 꿈: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특강도 하는 등 동아대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 초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퇴임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산 대형 로펌인 정인에 영입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 기념촬영

글로벌 대학 도약 위한 교원인사 혁신 "열심히 연구한 교원에게 파격 대우할 것"

동아대가 연구력 제고를 위해 교원 인사제도를 비롯한 성과보상체계를 파격 개선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한 교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2024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동아대는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원인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혁신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원 전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동아대는 2024년 11월 19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학장 및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 관련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연구력 제고를 위한 구성원 공청회'를 열었다.

동아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단과대학별 회의, 종합의견 취합 및 추진위원회 공유, 학과·추진위원회 간 간담회, 교무위원회 등을 통해 교원 전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024년 8월 이해우 총장은 제17대 총장 취임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으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제도화하겠다"며 "탁월한 성과를 올린 교수와 직원들이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연구력 제고를 위한 구성원 공청회 모습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 ‘글로벌 인재관’ 부민캠퍼스에 개관

동아대가 부민캠퍼스에 미래 국제역량 강화 전용 공간인 ‘글로벌 인재관’을 새롭게 개관했다. 대형 강의실과 글로벌라운지, 12개의 한국어 강의실을 갖춘 글로벌 인재관은 유학생들에게 학습 및 문화교류를 위한 혁신적 허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다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헌태 동아대 대외국제처장은 “글로벌 인재관을 중심으로 내국인 학생들과 유학생 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학연수생들이 동아대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한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관 한국어 강의 모습

팬데믹 해제 직후부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국제화 역량 강화에 주력해 온 동아대는 올해 1학기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총 50개국 1,845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어 연수생은 같은 해 공시 기준 전국 대학 중 6번째로 큰 규모다.

동아대,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강화

동아대는 2023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대학원 혁신’ 영역 선정 이후 대학원 혁신 및 체질 개선에 나서며 ‘대학원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서남대학 대학원, 서남정법대학 대학원과 협정 체결, 대학원 동문이 교원으로 재직 중인 대학의 대학원생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등이 그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청도농업대학(Qingdao Agricultural University)·청도대학(Qingdao University)·함양사범대학(Xianyang Normal University) 등 중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태국 우수대학과의 교류 협정도 진행 중이다. 치앙마이대를 비롯해 카셋사트대학교(Kasetsart University) 및 출라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등 태국 우수대학들과 교류를 넓히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주태국 대한민국

국대사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태국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대는 유학생 출신 국가를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교류하기 위해 해마다 ‘DONG-A International Day’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열린 행사에선 총 24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20개 부스를 마련해 문화교류 시간을 선사했다. 또 앞선 8월에는 한중 청년 교류 행사인 ‘2024년 한-중 청년 상호 방문 환영회(한중우호친선협회와 주부산총영사관 주최)’를 진행, 양국관계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폭넓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동아대와 중국 청도농업대 관계자들 기념 촬영



동아대와 치앙마이대 협정 체결 기념촬영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기념촬영

동문 박광웅 대표·성영진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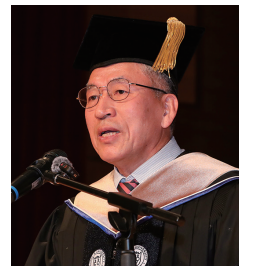
동아대가 동문 박광웅 ㈜온리원 대표와 성영진 청학가족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동아대 일어일문학과(현 일본학과)를 졸업한 박광웅 대표는 1997년 ‘원무역을 설립해 IMF 외환위기에도 유통시스템 개선, 혁신적인 경영 기법 도입으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일구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2008년 온리원을 시작으로 베스트마린(2013), ㈜온리원(2017) 대표를 역임하며 해외시장에 진출, 한국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 경영 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성실히 이행했다. ‘박광웅 동문 장학금’을 비롯해 총 2억 2,000만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성영진 회장은 동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0년 청학가족의 초석이 된 청학주유소를 시작으로 경남 알앤에스㈜·㈜케이앤씨·㈜청학에너지·㈜청학씨앤디·㈜용연지주 등 많은 회사를 창업, 탁월한 업적을 이루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2021년 4월 재단법인 청학장학회와 동아대 경제학과 간 장학 기부 약정을 체결, 2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청학장학회는 해마다 약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동아대 후학들의 성장과 학문적 성취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박광웅 대표



성영진 회장

인문사회 분야 정부지원 연구비 지원사업 잇달아 선정

동아대가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부지원 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와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로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학술연구역량 강화, 학문 균형발전을 통해 건강한 학문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동아대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과제에 선정돼 연구 성과를 축적했고 2020년엔 전술한 DB구축 사업으로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과제 선정으로 부산 지역 인문학 연구기관 중 DB구축 연구로는 최다 선정인 동시에 누적사업 수주 금액도 간접비 포함 26억여 원에 이른다. 동아대는 앞서 지난 2019년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젠더어팩트연구소(소장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영정보학과 이강배 교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4 사회과학(SSK)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교수는 3년간 총 9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AI 플랫폼을 이용한 글로벌 공급사슬 위기대응 전략’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AI, LLM, 지식그래프 등 최신 첨단기술을 활용,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을 위한 위기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이 교수 연구팀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의 GSC 맵을 구축할 계획으로 특히 2차전지, 화학산업 등 국가기반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높다. 이번 연구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경영·국제정치·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규 교수



정규식 교수



이강배 교수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정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학사·석사·박사과정)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2024년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선정됐다. 그간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 및 학과별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따로 운영해 연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학·석·박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게 된다. 동아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는 지난 2017년 석사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학사과정, 2023년 박사과정을 설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인력양성을 위한 학사·석사·박사 학위 간 연계과정을 구축했다. 현재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여러 번 받는 등 교육의 효율성과 질을 입증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또한 석사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인재진흥공단으로부터 타 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의 차별성이 돋보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환경과 관련한 핵심기술 개발과 관리 인력 육성이 운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아대는 지방거점 대학으로서 위상과 더불어 부산지역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R&D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는 이번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정으로 기존의 '참여기업 대표 및 학생 교류회'를 취임 페스티벌로 확대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기업 연구자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산학연 R&D 활성화를 계획 중이다. 무엇보다 2024 글로벌대학 선정에 따라 대학과 참여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시너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학년도 봄학기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연구성과발표 워크숍

중소기업 계약학과 2024년 참여기업 교류회 성황리 개최

부산 송도 원덤그랜드호텔에서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이인 정원영 삼영엔티(주) 회장과 김상현(석사과정 참여) 팀장 등 참여기업 대표(임원급) 및 참여학생, 교수진 등 총 76개 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참여기업 교류회'가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는 중소기업 인재대학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선정된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가 중소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석·박사 연계과정이 구축된 대학 중 선정되는 '중소기업 인재대학'은 현재 동아대를 포함 전국 6개 대학뿐이다. 이를 통해 동아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사업(계약학과, 기술사관)'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아대는 올해부터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정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외국인의 동시채용 진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R&D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의 우수 R&D 자원을 발굴해 지역 중소기업에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아대는 지난해 6월 대학을 방문한 파키스탄 주한대사와 MOU를 체결했고, 박헌태 대외국제처장과 신상문(계약학과 책임교수) 입학관리처장 등이 파키스탄 현지 방문, 전국에서 지원한 50여 명의 지원자를 면담하고 예비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동아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2024년 참여기업 교류회 모습

이날 행사에선 학과와 참여기업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아울러 동아대와 참여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정규 인력 확충을 위한 '참여기업 job festival'을 올해 9월 개최하기로 했다.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주관으로 중소기업인재진흥공단의 정책을 반영해 추진될 이 행사는 참여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 취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학과 차원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 적극 펼쳐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동아대가 학교와 학과 차원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8월 26일 개최한 '부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이차전지 산업 포럼'은 동아대 RIS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사업단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글로벌 이차전지 성장환경과 EV캐즘(chasm, 전기차 수요 일시적 둔화) 국면 공급망 이슈(삼성증권 장정훈 이사) △IMO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산업 기술 동향(한국해양대 천강우 교수) △특수목적용 ESS산업 및 기술 동향(선박용 ESS 중심)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영식 팀장) △인공위성과 우주산업의 기술 및 동향(NARA SPACE 이정규 본부장) 등 전문가 강연으로 관련 분야 최신 지식을 교류했다.



'부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이차전지 산업 포럼' 기념촬영 | 동아대와 동국씨엠 업무협약 기념촬영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기념 촬영 | 동아대와 조일산업(주) 업무협약 기념촬영

뿐만 아니라 동아대는 학과 차원에서도 산학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 10월 14일, 산업디자인학과는 부산 수영구 문화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산업디자인학과는 부산 수영구에서 추진하는 '민관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겨울시즌 빛축제(밀락루체페스타, 밀루페) 프로젝트에 참여, 이를 위해 동아대와 수영구청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산관학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1조(이효람·장현희·김나연·김윤현·이여주·이은서), 우수상은 6조(배지웅·김상욱·엄지원·김규리·송예진·김지영)와 7조(이가연·신은바·박연우·이혜람·전혜령·황예은)가 받았다.

시그마는 중 '지역문제 해결' 부문에 선정,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동아리원 61명 전원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동아대 베타감마시그마는 이번 '서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 부산 서구를 적극적으로 알려 찾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획자인 서주환 교수는 공동대표로 부산 서구 지역 '서리단길'을 조성한다. 한편, 건설시스템공학과는 'BIM 소프트웨어 활용 건설산업 재직자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LINC 3.0 사업 2024 디지털 공공안전 재직자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한 이번 교육은 산학협력 가족회사 중 BIM 솔루션 활용도가 높은 기업 임직원과 재학생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BIM 솔루션 실전 활용 사례를 이해하고 개인별 실습 및 코칭을 통해 BIM 솔루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영학과 서주환 교수가 지도하는 마케팅동아리 'Beta Gamma Sigma(베타감마시그마)'는 부산 서구청 주관 청년 활력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베타감마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과 김재호(앞줄 맨 왼쪽) 교수, 김우생(앞줄 맨 오른쪽) 교수 기념촬영 | 경영학과 '베타감마시그마' 서리단길 프로젝트 세미나 참석자들 기념촬영 | 건설시스템공학과 'BIM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건설산업 재직자 직무교육' 참석자들

진로-취업 지원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

동아대가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동아대가 2024년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인사혁신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청, 총동문회(회장 신정택·세운철강 회장)·총학생회에서 주관하고 한국토익위원회가 후원했으며, 한국전력·석유공사·기술보증기금·한국남부발전·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공기업, IBK기업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권, 에코프로비엠·현대자동차·대한항공·CJ제일제당 등 대기업, 에어부산·오리엔탈정공·세정 등 부산지역 우수기업 등 50여 곳이 참가했다. 특히 넥센(회장 강병중), 은산해운항공(회장 양재생), 경동건설(회장 김재진) 등 동문 운영 기업도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박람회는 10일에는 승학캠퍼스 체육관 일원에서, 11일에는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11일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는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BGF로지스, IBK기업은행 등 3개 기업이 채용설명회를 개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트렌드와 직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2024년 하반기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기대를 높였다.

또한, 동아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 K-Move

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사업'을 한층 확대, 전국 최대 규모로 본격 운영에 나섰다. 연간 70여 명 규모로 해외취업사업을 운영해 오던 동아대는 100명 정도로 규모를 키워 '해외취업에 강한 대학교'로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7개월간 600시간 시행되는 국내 교육을 통해 원어민 영어회화, 영문이력서 작성법, 영어면접, 비자 준비, 통역 실습 등과 직무교육을 받은 뒤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주요 도시 대기업 및 현지 주요 기업에서 연봉 4만 달러 이상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동아대 K-Move 사업은 12년 연속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4개 과정이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총 8개(상반기 4개, 하반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서 동아대가 유일하며 그동안 모두 55억여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모두 500여 명의 학생을 미국 현지에 취업시켰다. 동아대는 이 사업 등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 결과 대학정보공시(2023) 기준 전국 대학 해외취업자 수 부문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동아대는 지난해 11월 29일과 31일 양일간 부산 사하구가 주최하고 부산 사하구·중구·영도구·사상구·남구·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후원, 재학생과 지역주민, 고등학생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가한 '대학-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직업박람회'도 개최했다.



승학캠퍼스 체육관과 리인홀 등에서 열린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



동아대 K-Move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과정 17기 취업캠프 참가자들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 모습



승학캠퍼스 체육관과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대학-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직업박람회' 모습

로스쿨 2024년 검사 4명 로클럭 3명 합격 쾌거

동아대 로스쿨이 검사 합격자 4명, 재판연구원(로클럭) 시험 합격자 3명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동아대 로스쿨은 2023년에도 검사 합격자 4명, 로클럭 합격자 1명을 배출한 바 있으며, 80명이라는 입학정원을 고려할 때 최근 달성한 성과는 다른 대학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고무적인 결과다.

기존 사법고시에선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검판사 임용이 결정됐지만 현행 로스쿨 체제에선 3년간의 별도 준비과정을 거쳐야 검사 임용 시험과 재판연구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동아대 로스쿨은 검사,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들이 강의하는 전문 프로그램인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검사 및 재판연구원 선발시험 합격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해우 총장은 합격자와 지도교수 등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검사 및 로클럭 시험 합격자들과 이해우 총장, 송시섭 로스쿨 원장

명사 초청 특강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사유 기회 제공

동아대에서 명사들의 명강연이 펼쳐져 학생과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24년 총학생회 주관 명사초청 특강 및 동아리 박람회 특강 첫째 날 강연자인 박명수, 스포츠 해설가 박문성이 각각 '자신감',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둘째 날에는 '최강야구'의 더스틴 니퍼트, '공부의 신' 강성태가 강연자로 나서 각각 '동기부여와 도전', '소셜벤처 도전기'를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2024년 도서관 저자초청강연회'에서는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F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번역, TV 프로그램 『알쓸신잡』과 『알쓸신잡』 등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동아대 학생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에게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

기를 주제로 유려한 입담을 펼쳤다. 이날 김 작가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통해 나라는 존재로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대 인문과학대학(학장 김진경) 주최로 인문학 활성화와 부산 시민 인문학 소양 강화를 위해 개최한 '2024 열린 인문학 콘서트'에선 다양한 강연 및 예술 공연을 진행했다.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서 새로운 교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는 '자율성 회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지용 동아대 음악학과 교수 재즈 트리오 'just the two of us' 등 재즈곡을 연주했고 양희은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집 동아대 음악학과 교수, 밴드 '달언니와 말랑씨'의 보컬 및 애니메이션 주제가 및 가요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희 동아대 음악학과 교수가 무대를 채웠다.



박명수



더스틴 니퍼트



김영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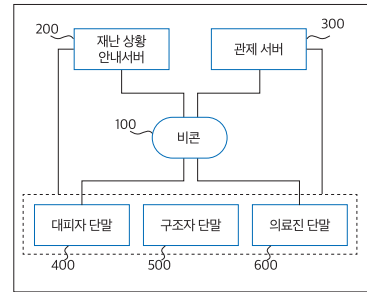


2024 열린 인문학 콘서트

동아대 교수들 활발한 연구활동 펼쳐



김점수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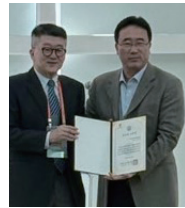
이동규 교수의 비콘을 이용한 재난 안전 스마트 안내 서비스 모형

동아대 교수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수상의 영광도 안고 기술 이진도 이뤄냈다.

화학공학과 김점수 교수(이차전지 핵심소재 중견기업 특화 인력 양성사업단 단장)가 부산지역 이차전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부산시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됐다. 화학공학과 김준형 교수는 신진연구자 교육·정착에 기여하고 천연물 기반의 목재 마감재 관련 교육에 힘쓴 공로로 2024 한국생물공학회 '유영제 교육상'을 수상했다. 화학공학과 김수환 교수는 재조합 효소를 이용한 조직공학 관련 연구와 SCI급 논문 30여 편, 특히 6건 등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24 한국생물공학회 신인학술상'을 수상했다. 사회학과 최이숙 교수가 논문 '연결된 엄마들, 확장된 목소리, 새로운 정치 주체의 탄생'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14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의 수상은 2021년 이후 두 번째이다. 경찰학과 이동규 교수가 '비콘을 이용한 재난 안전 스마트 안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주)세인트케이알에 기술이전했다. 이 교수의 기술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역 기반 재난 안전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 바이오소재공학과 허재복 교수 연구팀은 '플랜트 앤 셀 바이올로지(Plant and Cell Physiology)'에 논문을 발표하고 표지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최이숙 교수



김준형 교수(오른쪽)



허재복 교수

대학원생들 눈에 띄는 연구로 수상 영광 안아

동아대 대학원생들이 괄목할 만한 연구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패션디자인학과 김지연 박사가 '시선 전환빈도 분석을 통한 AI 생성 패션이미지 인지 차이 연구' 논문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경영학과 왕효강 박사과정생은 조직혁신을 위한 수준별 리더십 구분과 효과성 검증에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해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매경 신진학자논문상을 받았다. 체육학과 한미옥 박사는 비특이성 만성 요통을 가진 사람들의 통증, 근육 기능, 근육 형태, 파국화, 골반기울기 등에 대한 '단일 운동 효과'를 검증,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중개의과학과 박수정·박나영 대학원생은 청년회귀질환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 선정됐다. 두 대학원생은 각각 연간 장학금 1,100만 원, 600만 원씩을 받으며 연구주제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 기전 규명 연구', '퇴행성 질환의 에너지 대사에 관한 연구'이다. 화학공학과 김도연 석사과정생이 '한국화학공학회(KICHe) 2024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정시윤 석사과정생은 'Asia-Pacific Forum on Renewable Energy(AFORE) 2024'에서 'Best Poster Award'를 각각 수상했다. 화학공학과 배현웅 석사과

정생은 '구리 촉매를 이용한 다이옥사졸론의 환원성N-O 결합 분해를 통한 일차 아마이드 합성' 연구로 대한화학회 제134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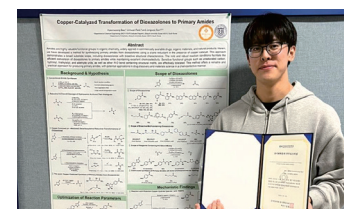
김지연 박사(오른쪽)



박수정·박나영 대학원생



김도연·정시윤 석사과정생



배현웅 석사과정생

동아대 학생들 각종 대회 수상으로 학교 명예 높여

동아대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쓰는 활약을 펼쳤다.

조선해양공학과에서 OpenDEP, OpenDEJ 등 2개 팀이 '제5회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KABOAT 2024)'에 출전해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12개 상을 거머쥐었다. 조선해양공학과는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1~2위를 차지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2024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부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시경로당 도입 제안'이었다. 컴퓨터시공학부 학생들은 제5회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3위를 휩쓸었다. 대상은 효과적 가상발전소 운영을 위한 신뢰도 보정 모듈을 제안한 '브이피피', 최우수상은 고효율 디지털 재사회화 플랫폼을 제안한 'CTS', 우수상은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담배공초 수거함을 제안한 'No White' 팀이 수상했다. 응용생명과학과 생명자원산업학과 기능성물질분석연구실 소속 전세현 대학원생과 고은정·박동현 학부생은 2024 한국생명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식품과학/미생물 세션에서 발표하고 우수포스터상 2건을 수상했다. 응용생물공학과 우지현·박민수 학생이 '기후변화와 뒤영벌에 관한 연구학점' 수행 결과로 한국양봉학회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논문은 한국양봉학회지 'Journal of Apiculture'에 게재될 예정이다. 미래에너지공학전공 학부생 연구팀이 '2024 위성영상 활용 새싹연구 지원사업'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딥러닝 기반 객체탐지 기술을 접목, 코끼리물범 탐지 및 개체수 산정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계공학과 학부생 팀이 '2024년 한국 기계가공학회 캡스톤디자인 및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아대 기계공학과 학부생 팀은 지난해 5월부터 'SW중심대학사업'에 참여해 7개월간 꾸준히 준비해 좋은 결과를 거뒀다. 고고미술사학과 학생 창업동아리 'H.tag' 팀이 '유잇(유산을 잇다)'이라는 무형유산 플랫폼을 창안,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창업캠프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H.tag팀에게는 맞춤형 사후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영정보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이음새' 팀은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극대화하는 챗봇 형식 플랫폼 구상안으로 전국 대학생 ICT 분야 지식재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LINC 3.0 사업단이 운영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소속 학생들이 'F1 Tenth Korea Championship'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등 23개 대학, 37개 기관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찰학과 학회 '패트roller'의 학생 3명이 협업 순찰활동, 'CPTED'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표시 활동으로 지역 치안 발전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제79주년 경찰의 날'에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과 '부산서부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동아자동차연구회(DASC) 동아리 학생들이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한 '2024년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Formula(포뮬러) 부문 동상을 받았다. 이 대회에는 전국 40개 대학, 중국 2개 대학에서 54개 팀이 출전했다.



2024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2024 위성영상 활용 새싹연구 지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래에너지전공학부 학생들



F1 Tenth Korea Championship 1위를 차지한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전공 학생들



'제5회 자율운항보트경진대회(KABOAT 2024)'에서 종합 1위 성적을 거둔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

전국 정상에 오른 '최강' 동아대 스포츠

동아대 학생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전국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야구부가 지난해 9월 23일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에서 고려대를 10:9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동아대 야구부는 지난 2018년 전국체전 우승 이후 6년 만에 전국대회 왕좌를 되찾았고 1948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 37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다. 주장 나성원은 '타격왕', 엄준성은 '수훈상', 정재현은 '우수투수상', 손희찬은 'MVP', 이재현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동아대 스포츠단 선수들이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육상부 정안성 선수가 400MH에서 개인 신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해머던지기(강민승), 멀리뛰기(신서연), 400MR(계주)(정안성·윤여준·전유민)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부 류진(-74kg) 선수는 은메달을, 김나연(-73kg)·현지민(+87kg)·임대원(-63kg) 선수는 동메달을 땀다. 레슬링부 최원(F65kg)·차서현(F97kg) 선수, 수영 양원기·박준하·김승민 선수도 수구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축구부는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태백산기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아대는 2002년 준우승 이후 22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았고, 지난해 8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한남대를 상대로 0:3으로 패하며 2위에 올랐다. 주장 김민성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김영남 골키퍼는 '수훈상'을, 백승우 감독과 이효균 코치는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미식축구동아리 레오파즈는 2024년 부산·울산·경남 미식축구 추계 선수권전에서 준우승을 차지, 전국대회인 '타이거볼'에 부산 지역 대표로 출전했다. 레오파즈가 참전한 타이거볼은 우리나라 대학 미식축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회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태권도학과도 다양한 활약을 펼쳤다. 태권도 품새단 정유성(3) 학생은 '2024 제2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품새 개인전 1위에 오르며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 티켓도 획득했다. 제20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에서 광금주(1) 학생이 격파 개인전 여자 대학일반부 1위, 조규희(2) 학생이 3위로 시상대에 올랐고 팀 대항 종합경연에서 동아대 팀이 대학일반부 장려상을 받았다.

태권도학과와 태권도 시범단이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동아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이 함께한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참여해 현지 학생들의 부산 유학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년외교단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도 진출해 태권도 체험, 태권도 버스킹 등을 선보이며 '부산페스타'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에서 우승한 동아대학교 야구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동아대 스포츠단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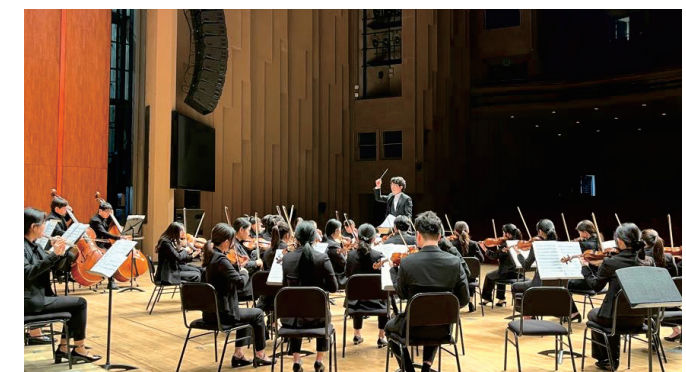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한 동아대학교 축구부

대학생 작품제작 지원사업 선정 수준 높은 공연으로 부산 시민 문화 향유 기여

동아대 음악학과가 수준 높은 공연으로 부산 시민들의 문화 안식처를 제공했다.

음악학과 학생들이 '2024 대학 교향악 축제' 무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펼쳤다. 대학 교향악 축제는 (재)부산문화회관과 동아대, 경성대, 동의대, 부산대, 인제대가 부산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동아대 음악학과는 이번 축제의 첫 공연을 맡았으며, 베토벤 교향곡 제2번과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과 피아노 협주곡 1악장, 장일남 작곡 '박연폭포'와 칠레아 오페라 아를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등을 연주했다.

음악학과 크로스오버 팀 '스테리어스(STARRYUS, 예술감독 장진웅)'가 대학생 작품제작 지원사업 선정작 '엄마의 일기장'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엄마의 일기장은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주인공이 우연히 다락방에서 엄마의 옛 일기장을 발견하고 엄마의 학창 시절 이야기와 쓰다만 악보 등을 보며 엄마의 미완성곡을 완성하기로 다짐한다는 내용이다. 스테리어스는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의 콜라베이션을 통해 독보적인 음악적 색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4 대학 교향악 축제' 무대



'에드바르 몽크의 초상수업' 공연 모습

음악학과가 '2024년 부산광역시 대학생 작품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화가 '에드바르 몽크의 삶을 담은 다원예술 음악극 '에드바르의 초상수업' 공연을 올렸다. '에드바르의 초상수업'은 몽크의 작품을 재해석한 디지털 아트와 영상, 연기, 음악의 결합으로 몽크의 삶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연주자로 나서고 동아대 음악학과 출신 청년예술가들이 모인 예술단체 '안디뮤직(An die Musik)'에서 제작을 맡았다. 총 예술감독은 Grow4Music 및 An die Musik 대표인 동아대 음악학과 독고훈 교수가 맡았다. 이 공연에는 업서카드로 나만의 자화상 그려보기, QR코드를 활용한 공연 향유 등 관객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한 음악학과는 'Schubert(슈베르트)와 함께 낭만이란 열차 타고' 연주회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2024년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 예술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독일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대표 가곡 '마왕', '아베 마리아', '송어' 등을 새로운 형태의 곡으로 편곡하여 개사, 음악으로 풀어내 부산 주요 관광지 영상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 장·노년층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대를 마련했다. 동아대 음악학과 교수 및 졸업생이 주축인 Grow4Music, An die Musik이 각각 주최, 후원을 맡았다.



'엄마의 일기장' 공연 모습



'슈베르트와 함께 낭만이란 열차 타고' 공연 모습

생명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다



중환자를 위한 인간적인
돌봄을 연구하다

*Kang
Ji
Yeon*



천연물질의 기능을
의학으로 연결하다

*Lee
Jin
Hwan*

뜻깊은 '처음'을 맞이한 석당학술상의 두 주인공

간호대학 간호학과 **강지연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학과 **이진환 교수**

Q 먼저 '석당학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후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진환 교수(이하 이 교수) 전 이번이 대상으로 선정된 첫해인데 바로 수상까지 하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석당학술상 수상은 저의 연구 분야를 인정받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는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지연 교수(이하 강 교수) 제가 간호대학장 보직을 맡고 있어 그런지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학과 발전에 좋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또 간호학과 교수가 석당학술상을 수상한 것이 처음인데 다 간호학부가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는 뜻깊은 해에 받은 상이라 무척 기쁩니다.

Q 그리고 보니 2026년 30주년을 앞두고 간호학부가 120명 정원의 간호대학으로 승격했어요. 시기적으로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강 교수 작년에 은퇴하신 이은남 교수님께 항상 "교수님! 은퇴하시기 전에 간호대학 만들어 주셔야 해요!" 하고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놓았었는데, 정말 간호학부로 독립 시켜주고 은퇴하셨어요. 그렇게 1996년 30명으로 시작한 간호학과가 간호학부를 거쳐 2025년 120명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승격하게 됐고 구성원 모두가 무척 감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간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문, 재학생, 교수들의 노력이 큰 감사를 드립니다.

Q 이 교수님은 환경부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13년을 근무하셨어요. 국가기관의 촉망받는 연구원에서 어떤 계기로 연고가 없는 부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아대학교로 오지게 되었나요?

이 교수 제가 정말 원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동아대의 경우 네임밸류도 있고 학교도 든든하게 지원해 주니까 믿고 선택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과 연구 경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던 날 강의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면접관이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부, 대학원 학생들까지 40~50명이 들으러 와서 그 열의에 놀랐습니다. 제가 국가 기관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하하).

Q 생명자원과학과 간호학은 어찌 보면 그 겉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의 동시 수상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교수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으로는 합성을 통해서 다 만들어 내고 있죠. 하지만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 속 성분이 밝혀지면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전공 분야인 천연기능성물질 검증이 바로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전 단계, 즉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강과 수명연장 등의 관련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자연 소재 발굴이 제 최대 관심사이자 목표입니다.

강 교수 2024년 간호법 통과로 인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명확해질 것이라 봅니다. 특히 중환자 간호 분야는 신속대응팀, 호흡전담, 재활 등 전문 간호사가 필요한 세부 분야가 많아요. 급변하는 의료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진화된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지 동료 교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측면에서 중환자 간호는 특히 다학제간 협력과 융합이 필수적인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Q 동아대 후학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교수 간호사는 학부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좋은 간호에 대해 고민하고 누구를 위해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수 공동 의식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시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동아대의 경우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이후로 계속 레벨업 중이고, 훌륭한 교수님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나 하나는 당장 빛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단계를 거쳐 가다 보면 마침내 모두 빛나게 될 겁니다.

부산에 뿌리내린 기업, 100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다

“
앞선 이로부터 발견한,
일생을 관통하는 끊임없는 도전 의식
”

Heo
Dong
Yun



건축을 사랑한 청년, 지역에 인문학을 심고 글로벌 기업을 키우다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동윤 대표이사**
건축공학과 78학번

Q 동아대 건축공학과 ‘허동윤’, 어떤 학생이었나요?

지금은 설계 수업 시간이 12시간이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4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 항상 과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죽어라 하니 까 설계 교수님께서 그런 저를 무척 예뻐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칠판에 과제를 놓고 평가받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 과제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곤해졌다’고 동기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Q 건축에 뜻을 두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동아대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블록 게임 같은 것도 곧잘 했어요. 내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대학은 성적에 맞춰서 왔는데(하하), 학교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재학시절부터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후배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끌어 올려주고 애써주는 동문이 있었기에 동아대가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동아대는 남다른 동문 네트워크 파워로도 유명하죠. 동문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회기적인 사립대학 총장 연임으로 글로벌대학 선정까지 해낸 이해우 총장님, 학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술선수범해주시는 신정택 총동문회장님, 석당박물관장이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 활동과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 김기수 교수님 등 동문으로 활동 중인 다른 분들을 보며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사실 동아대 출신들을 보면 일찍 사업을 일구고 소위 정년을 넘어서도 현장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평이하게 살기보다는 끊임 없이 개발하고 도전하는 게 동아대 출신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Q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동아비즈니스포럼 수석부회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2010년 동아비즈니스포럼 창립 발기인 사전 모임부터 함께 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포럼에는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비를 들여 재단을 설립하신 김영식 이사장님(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재단에 기부로 동참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포럼이 회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언급하신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외에 동아대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기부도 많이 하셨지만, 농촌봉사나 헌혈같은 사회공헌부터 인문학아카데미까지 회사의 남다른 활동도 돋보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사고과에 필수로 반영되는 학점제가 있어요. 농촌활동과 헌혈의 경우 학점이 제일 높습니다(하하). 2010년부터 1사 1촌을 맺은 의령 수암마을 봉사는 선한 영향력은 물론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알아야 인간을 위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학아카데미와 열린 부산 도시건축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에 가까운 일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Q 끝으로 ‘부산의 대표 기업가’로서 동아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학이 분명하다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역시 30명에서 560여 명 규모로 클 수 있었고요.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서울과 해외까지 내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부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글로벌 중심 ‘지역을 위해, 부산의 기업가로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대 야구부, U-리그 왕중왕전 우승

“ 1948년 지방 최초 창단, 76년의 역사 그리고
최정상 자리에서 함께 쓴 37번째 전국대회 우승 기록 ”

DONG-A BASEBALL TEAM



부드러운 카리스마, 굳건한 원(ONE)팀을 만들다

야구부 이재현 감독
체육학과 99학번

Q U-리그 왕중왕전 첫 우승! 예선전부터 우승까지, 감회가 남다르실 듯 합니다.

2017년도에 신설된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은 대학 야구에서 제일 권위 있고 큰 대회입니다. 사실 시즌 오픈 직전 주전선수 3명이 부상으로 이탈해 올해 전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U리그 예선에서 8승 1패라는 예상 외의 성적을 거뒀고, 조 1위로 통과하면서 기대를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본선이 부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서로 손발을 맞춰 원팀으로 서로 믿고 경기에 임해주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2024 시즌은 야구란 스타플레이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Q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유명하세요. 선수들의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특별해 보이는데요.

제가 강성은 아니고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합니다(하하).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감독 생활을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올해도 일본 훈련 당시 숙소에서 식사 후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를 낸 것이 거의 유일한 경우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개인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위한 경쟁 시스템을 갖춰 주는 등, 무엇보다 선수들이 동아대에 왔을 때 꿈과 희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수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는 가차 없어요. 일본에서의 일화처럼요(하하).

Q JTBC '최강야구'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출연 확정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우승팀 중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만 출연할 수 있어요.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U-리그에서 우승했고, 최강야구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승한 것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최강야구팀과 경기하면서 '역시 레전드 선수는 괜히 레전드라는 수식어가 있는 게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시합을 패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두 번째 시합에서는 좀 타이프하게 쫓고 쫓기는 경기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역전패로 저서 아쉬움이 큼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너무 멋지고 잘했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Q 끝으로 함께 우승을 이뤄낸 야구부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 부상도 많았고 여러모로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보여주듯 말 그대로 '신들린 경기력'을 보여주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큰 갈등 한번 없이 성실히 훈련에 임하고 자기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늘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우승을 해내고야만 선수들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성장을 이뤄낸 우리 선수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성실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 2, 3학년 선수들에게는 다가올 2025년 다음 목표를 향해 훈련 기간을 성실히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올해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2025년 시즌이 더 기대된다는 말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신들린 경기력’, 최고의 순간을 만나다

야구부 체육학과 3학년 왕준석
(야구부 주장·외야수)



Q 먼저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예선전부터 뛰어난 성적으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선수들 역시 우승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선전 조 1위였기 때문에 자신감과 함께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1차전 계명대를 어렵게 이기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덕분에 팀 분위기가 항상 좋았고 결승전 우승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타고 그게 또 좋은 기운으로 쪽쪽 이어지니까 그때는 다들 ‘미친 듯이’ 해냈어요.” (김윤수 선수)

Q 감독님께서도 팀워크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동아대 야구부 팀워크의 비결은?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고 학년 관계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독님, 코치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코치님과 감독님이 선수들의 부족한 점 하나하나를 보완하고자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장성현 선수)

Q 슬럼프나 부상 등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선수들 누구에게나 부상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훈련이 힘든 것 또한 당연한



니다. ‘나태함을 슬럼프라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이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슬럼프다 싶으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팔꿈치 부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재활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정재현 선수)

Q 결승전의 경우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쫄깃쫄깃한 접전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을 확신한 순간 어땠나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두 손이 저질로 모아질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후반에 다리 근육에 경련이 왔었는데, 마지막 삼진 아웃으로 경기가 끝났을 때는 다리 아픈 것도 잊고 뛰어 나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나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신하늘 선수), “당연한 결과라 덤덤했습니다.”(김민범 선수), “우승 확정 짓는 순간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진선규 선수), “저는 바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하선호 선수)

Q 우승 이후 JTBC 최강야구 출전도 하셨죠. 평소 하던 경기와 다른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최강야구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출연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U-리그 우승팀으로 우리 경기를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동아대학교의 야구를 보여줘야겠다’는 야심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U-리그 결승전보다 더 긴장됐어요.” (유혁 선수)

Q 앞으로 야구부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겨울엔 부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기술보다는 체력 훈련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 만큼 더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왕중왕전 꼭 2연패 하겠습니다!

경기사진 제공: 동아대학교 스포츠단 서포터즈 '스포츠아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전하는 감사와 다짐



❶ 왕준석(외야수)

주장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소통과 협력의 원팀을 만들어 동아대학교의 이기는 야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❷ 하선호(투수)

올해는 아쉽게 진출하지 못했던 전국체전에서 내년에는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❸ 장성현(외야수)

우승 한 번 더 하고 '동아는지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❹ 김민범(포수)

팀 성적이 좋으면 개인 성적도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팀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❺ 정재현(투수)

내년 목표하고 있는 경기의 전승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❻ 신하늘(내야수)

내년에 대학교 마지막 시즌인만큼 과감하게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더 강해질 야구부를 기대해 주세요!



❼ 김윤수(내야수)

팀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훗날 프로 지명받을 수 있게 매 경기 후회 없이 임하겠습니다!



❶ 유혁(외야수)

동아대학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와, 이번 경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팀이 되고 싶습니다.



❼ 진선규(내야수)

내년에는 목표하는 대회에서 모두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철 (주)오리엔탈정공 회장

모교 발전기금 1억 원 쾌척

박세철 (주)오리엔탈정공 대표이사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9월 5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 총장과 박 회장, 박현태 동아대 대외국제처장, (주)오리엔탈정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현대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기본 의무인 ESG경영을 실천하고 모교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학에 부임하기 전 조선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회장님과 인연을 맺게 돼 정말 반갑다”며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수소밸브 분야 등에서 산학협력을 선도할 동아대와 사업 시너지도 더 낼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동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주)오리엔탈정공에 입사해 해외사업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40년 가까이 (주)오리엔탈정공에 몸담고 있다.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주)오리엔탈정공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최초로 자체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 중이며, 완공 후에는 지역과 관계사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 고부가가치 크레인과 특수 크레인 국산화 연구에 집중해 세계적인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 회장은 같은 달 10일 열린 '2024학년도 공과대학 콜로키움'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로 그가 회사원으로 입사해 오너의 자리에 오른 노하우와 인생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연했다.



고진호 (주)퓨트로닉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고진호 (주)퓨트로닉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고 회장은 지난해 10월 16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 발전을 위한 총장님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기부가 동아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지역사회에도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우 총장은 “오랜 친분을 가져오며 평소 존경하고 있는 고진호 회장님의 통 큰 기부에 감사하다. 고 회장님은 평소 지역사회 소외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은 기부를 해오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동아대와 퓨트로닉의 발전적인 관계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퓨트로닉은 1993년 자동차 전자부품(자동차 전자부품)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자동차 산업 기반 기술인 센싱(Sensing) 기술을 포함한 자동차 전장 필수 부품(Mechatronic)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자동차 모터와 액추에이터, 전장부품 등을 개발·생산하며, 2023년 매출 1,800억 원을 기록했다.

고 회장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기부와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및 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서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부산정보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부산벤처기업 부회장 등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벤처기업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2024년 제25회 부산문화대상' 경영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박세철(오른쪽) (주)오리엔탈정공 대표이사 회장과 이해우 총장



고진호(오른쪽) (주)퓨트로닉 회장과 이해우 총장

경영대학원 MBA 56기 졸업생 일동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후기 석사(MBA) 학위수여식에서 제56기 졸업생을 대표해 이해영 원우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엔 이 총장과 경영대학원 최규환 원장, 이경환 부원장을 비롯한 교수진, 송기영 MBA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관계자,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이 원우회장은 동아대 총장 명의의 '도전인재상'을 수상했고 경영대학원장·MBA총동문회장 공로패, 성석동 장학금 등이 시상됐다. 송기영 MBA총동문회장은 "성심을 다해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과 행정지원실, 학교 관계자, 가족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규환(왼쪽) 경영대학원장과 이해영 원우회장



경영대학원 AMP 56기 원우 일동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이동준(왼쪽) 총동문회장과 이해우 총장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총동문회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동준(56기) 일우종합개발 대표이사가 AMP 제51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했고, AMP 56기 원우 일동이 동아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51대 동문회장을 맡겨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AMP총동문회 명성을 이어가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해우 총장은 "선진 일류 대학으로 가는 길에 AMP 동문 여러분의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경영대학원 서한영·배병호·정혜진·이혜영 동문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교 MBA '제28회 정기총회 및 2025년 회장 이·취임식'에서 '자랑스러운 경영인상'과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수상한 서한영(45기·㈜천사사람들 대표이사), 배병호(51기·삼진웰텍(주) 대표), 정혜진(55기·성식당 대표), 이해영(56기·법무법인 금정 대표변호사) 동문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송기영(47기) 이임 회장과 권오진(47기) 이임 사무총장도 경영대학원 학업지속지원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배병호·정혜진·이혜영 동문, 이해우 총장, 서한영 동문, 최임근 MBA 총동문회장

김신 석좌교수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김신 석좌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석좌교수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고 2018년 9월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해 왔고 2022년에도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로스쿨 원생들을 위한 특강뿐 아니라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 석좌교수는 "원장님과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분위기가 더 쇠신될 것이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우 총장과 김신(오른쪽) 로스쿨 석좌교수



권기우·황주환 변호사

로스쿨 발전기금 각 1,000만 원 기부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법무법인 구덕 권기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황주환 대표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원장

권기우·황주환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권기우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황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998년부터 여러 차례 모교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92년도 개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아대 출신 변호사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며 "로스쿨 후학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로스쿨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조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세호 (사)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동아대 동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사)동아비즈니스포럼(회장 강세호 FT Marine 대표)이 개최한 제 67회 정기포럼에서 강세호 회장이 동아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7월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펠름에서 열린 포럼엔 강 회장과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 고문위원, 정용표 부회장 등 포럼 회원들과 박헌태 대외국제처장, 최규환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한 동아대 관계자 등 모두 60여 명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오늘 포럼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친분을 더욱 다지고 유익한 특강으로 도움도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Poly Math형 인재' 주제로 장예찬 시사평론가 특강이 열려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1년 동아대 동문 기업인을 중심으로 발족한 동아비즈니스포럼은 2017년부터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며 동남권 대표 비즈니스 단체로 성장했다. 사람을 위한 기술과 기업 경영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CEO 및 각종 단체장 소양 개발, 지역 사회 발전, 산학연계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세호(오른쪽) 회장과 박헌태 동아대 대외국제처장

경영문제연구소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7호 기부



양재호(왼쪽) 경영문제연구소장과 최규환 경영대학장

경영학과 양재호(경영문제연구소 소장) 교수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57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는 동문이나 기업인의 도움으로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다우이스트(DAUist, 동아대 경영인)'를 길러내기 위해 2017년 처음 시작됐다.

1977년 설립된 동아대 경영문제연구소는 원가 계산 기관으로서 국내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산정을 수행했다.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장기 발전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해 전국에서 그 우수성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효재 (주)아이엠테크 대표

미술학과 발전기금 500만 원 기부



이효재(왼쪽) (주)아이엠테크 대표와 이해우 총장

이효재 (주)아이엠테크 대표가 미술학과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경영학 석사과정) 51기인 이효재 대표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LNG선 탱크(TANK) 제작 및 서비스 기업인 (주)아이엠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 MBA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동아대 승학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제57회 미술학과 도자예술전공 졸업작품전' 오프닝에서 진행됐으며 이 대표는 "딸이 이번 졸업작품 전시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딸의 졸업 학과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故 엄기섭 한진물산(주) 회장 기부금으로 조성

2024학년도 엄기섭 장학금 수여식 개최



엄우상(앞줄 왼쪽 여섯 번째) 한진물산(주) 대표와 참석자들

지난해 10월 '2024학년도 엄기섭 장학금 수여식'에서 20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난해 3월 작고한故 엄기섭 한진물산(주) 회장은 동아대 화학과 출신으로 2008년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 매출 200억 원이 넘는 국내 공구 수입 강소기업 한진물산을 일궈냈으며 총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교에 기부했다.

수여식에 참석한故 엄기섭 회장의 아들인 엄우상 한진물산(주) 대표는 "아버님 덕분에 여러분께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해우 총장은 "여러분이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4년 9월 1일 ~ 2025년 1월 17일)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단체

(주)HKM	(주)지앤지코퍼레이션	법무법인 제헌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지엔시	법무법인 구덕	재단법인 김천
(주)메디파워	(주)진도토건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주)메종건축사사무소	거제리 명가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주)아이엠테크
(주)비에프씨씨	김태현변호사법률사무소	비엔케이캐피탈(주)	(주)오리엔탈정공
(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덕천필피부과의원	비케이메탈	(주)이룸건축
(주)양코르건축	동아대박사태권도장	삼진웰텍(주)	(주)천사사람들
(주)에듀피플스	미래넷	숲속심리언어상담센터	(주)퓨트론닉
(주)온리원	법률사무소 규리	에스스포츠	한국리모델링협회
(주)유디엠	법무법인 금정	윤석중법률사무소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후원의 집

(주)올복스	동경초밥	소담	진선
금호횃집	동원장수촌	송월타올	초원복국
누리마을감자탕	밝은눈안과의원	송이아구찜	카플러스
대궁삼계탕	밝은세상안과	송해횃집	투썸플레이스동아대점
대물림 청송집	본가사하점	아이시티안과의원	플로르델리아
대훈기획	산정	어심초밥	흥부가
더진국하단점	상록광고기획	영의루	
도리원	선미집	이모식당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개인

강금순	고여경	김경진	김명범	김성진	김은주	김지만	김형진	류순식	박상혁	박종훈	배지영	서효진	송훈춘	안영주	오지영	윤선영	이도관	이수호	이재성	이창경	임홍석	정달식	정진아	조재현	최금화	최현중	허형록
강기수	고영남	김경태	김명수	김성태	김은주	김지숙	김형철	류승훈	박상현	박주상	배진경	선정애	신경미	안영희	오진환	윤성국	이도현	이승아	이재은	이창수	장기철	정대성	정진용	조정호	최기혁	최현태	허혜숙
강나현	고영라	김경화	김명숙	김성현	김은진	김지연	김혜경	류용주	박상현	박주현	배태섭	설남중	신경아	안원석	오창일	윤성수	이도환	이승용	이재은	이창훈	장명수	정동규	정진용	조철기	최동원	최형림	현수빈
강남옥	고유석	김광란	김명중	김세훈	김은혜	김지현	김혜영	류윤아	박석강	박준혁	배한숙	설영진	신경탁	안유선	오현택	윤성욱	이동명	이승욱	이재헌	이철우	장문재	정동열	정진희	조현산	최미숙	최형열	현안나
강누빈	고윤성	김구	김문범	김소현	김의도	김지혜	김혜정	류은영	박석주	박준호	배형우	설형수	신경호	안일선	오형진	윤세련	이동명	이승재	이재헌	이철우	장미	정득헌	정찬식	조현아	최미옥	최혜경	현연수
강다연	고재연	김구연	김미란	김소혜	김익현	김지혜	김혜진	류윤희	박선아	박준홍	배홍준	성기근	신기옥	안태형	옥민	윤아영	이동민	이승태	이재형	이충섭	장민우	정무섭	정창석	조현준	최민아	최호림	현창욱
강대선	고홍수	김권민	김민수	김수경	김인자	김진경	김회경	류지희	박선원	박지연	백건희	성낙용	신미경	안혜령	옥수선	윤영준	이동숙	이승현	이재훈	이태광	장병일	정미영	정철	조형열	최민철	최호석	형민아
강대성	공미정	김권호	김민수	김수련	김일근	김진길	김효준	문건주	박선희	박지용	백경민	성백석	신민준	안효성	옥순상	윤원용	이동언	이승현	이재훈	이평세	장보고	정미영	정충훈	조혜영	최병열	최홍규	홍상혁
강대원	공병민	김규범	김민정	김수정	김일봉	김진석	김훈	문동욱	박성범	박지은	백상훈	성병찬	신병준	안효익	왕민	윤은기	이동주	이승형	이정관	이필우	장선희	정민	정태호	조혜영	최병욱	최희선	홍서영
강동윤	공윤중	김규한	김민주	김수진	김일영	김진수	김희경	문병진	박성빈	박지혜	백승우	성봉자	신봉준	강동일	공해경	김근민	김민철	김순진	김재현	김진용	김희경	문선진	박성일	박지혜	백승이	성세환	신부삼
강동현	곽기혁	김근우	김민하	김승민	김재한	김진용	김희돈	문선영	박성제	박진익	백승기	성수현	신상문	강동훈	곽길수	김기수	김민형	김승우	김재현	김진용	김희선	문영주	박성혁	박진영	백정한	성이용	신상열
강동훈	곽명서	김기수	김민희	김승일	김재현	김진홍	김희준	문요한	박세영	박진영	백종국	성이현	신상용	강래욱	곽미진	김기영	김범수	김승태	김재홍	김진호	나마타파	문진호	박세준	박진철	백차승	손경석	신상원
강래욱	곽미진	김기영	김범수	김승태	김재홍	김진호	나마타파	문진호	박세준	박진철	백차승	손경석	신상원	강명자	곽선화	김기정	김병국	김승호	김재홍	김창석	나웅	문철주	박소연	박차원	백희자	손광석	신상의
강명자	곽선화	김기정	김병국	김승호	김재홍	김창석	나웅	문철주	박소연	박차원	백희자	손광석	신상의	강명진	곽은희	김기중	김병권	김시동	김재홍	김창오	나진숙	민영기	박소영	박찬규	변상민	손민근	신성현
강명호	구관희	김나랑	김병립	김신	김점수	김창완	남경문	민혜숙	박수천	박창구	변선영	손석주	신성호	강문성	구중환	김나현	김병수	김아현	김정근	김창훈	남광호	박경덕	박소영	박창열	변성우	손영욱	신숙영
강봉순	권기항	김나현	김병찬	김애희	김정규	김창희	남명구	박경렬	박순우	박창현	변상철	손정순	신승욱	강상모	권대성	김남국	김보람	김양근	김정대	김재수	남보현	박경만	박승중	박철현	변성호	손정한	신영완
강상훈	권동식	김남균	김보배	김양이	김정득	김춘덕	남상들	박경미	박시윤	박철홍	변숙진	손종윤	신용우	강석우	권명수	김남영	김보연	김양희	김정미	김춘영	남상실	박경식	박언주	박태위	변영철	손진규	신용택
강선화	권성길	김남희	김보연	김연국	김정민	김춘호	남승덕	박경애	박영일	박한솔	변영학	손창현	신용호	강성원	권순일	김달효	김보현	김영권	김정석	김태근	남승현	박경우	박영태	박한신	변행식	손채훈	신윤호
강성윤	권영근	김대건	김봉진	김영근	김정선	김태수	남윤성	박경원	박영후	박해일	변현숙	손태중	신재봉	강성현	권영근	김대경	김상봉	김영민	김정아	김태완	남은희	박광원	박옥순	박해지	사봉석	손판도	신재욱
강수진	권영삼	김대륙	김상열	김영민	김정화	김태우	남지연	박광휘	박용섭	박현숙	사정훈	손하은	신정현	강영조	권영성	김대영	김상엽	김영선	김정희	김태원	남찬섭	박기상	박용성	박현우	서광민	손현준	신정환
강은미	권영준	김대영	김상준	김영선	김정희	김태원	남창우	박기현	박유영	박현태	서대관	손현진	신지윤	강은혜	권영탁	김대욱	김상진	김영수	김종국	김태철	남현정	박닝쿨	박유진	박형태	서동균	손현태	신창엽
강이태	권오구	김대웅	김상태	김영우	김종렬	김태훈	노강민	박달해	박윤경	박혜진	서명교	손형수	신현범	강정호	권오근	김대준	김상현	김영준	김종목	김태희	노상우	박동민	박용호	박환석	서미옥	손홍락	신호민
강정화	권우정	김대중	김상현	김영준	김종수	김하나	노연정	박미옥	박은경	박효민	서상국	손홍모	신흥기	강정희	권재영	김대진	김상호	김영하	김종식	김학이	노영진	박미정	박은경	박희태	서석준	송강직	신희진
강종훈	권주영	김대현	김석지	김영호	김종식	김향이	노영훈	박미향	박은정	반성욱	서승원	송기영	심미화	강주용	권창영	김대환	김석현	김영환	김종욱	김현	노창현	박미혜	박일근	반한용	서쌍용	송대성	심영규
강지연	권태정	김덕현	김선경	김영훈	김중혁	김현구	노춘근	박민선	박장식	방극승	서영호	송명근	심재후	강지현	권한용	김도경	김선미	김예지	김중혁	김현미	노해성	박민성	박재근	방대중	서영희	송명근	심형열
강태홍	권현규	김동국	김선익	김오연	김중현	김현민	노현숙	박민수	박재우	방성운	서우석	송모란	안경순	강하승	권현안	김동섭	김선진	김완중	김주영	김현민	노현욱	박병권	박재우	방순금	서재유	송민정	안기범
강항모	권혜민	김동섭	김성국	김우남	김주오	김현우	노희관	박병규	박재진	배길석	서정우	송성훈	안길용	강해진	권혜원	김동수	김성기	김우현	김주찬	김현준	도동오	박복자	박정국	배도정	서정택	송시영	안나현
강혜진	권효철	김동우	김성동	김원재	김준석	김현진	라광현	박봉경	박정훈	배동고	서주환	송유진	안목련	계민수	권희진	김동준	김성렬	김윤경	김준우	김현태	류관호	박봉철	박종귀	배문형	서주희	송재만	안미혜
고상만	기성훈	김동진	김성목	김윤정	김준우	김형록	류단비	박상석	박종민	배성류	서창현	송정량	안병훈	고성광	김가은	김동환	김성욱	김윤진	김준찬	김형빈	류미향	박상아	박종신	배성한	서추연	송창호	안분훈
고성원	김건욱	김동훈	김성자	김윤희	김지건	김형석	류민호	박상욱	박종욱	배유일	서현준	송형기	안세봄	고수현	김건우	김만재	김성재	김은경	김지나	김형수	류상수	박상원	박종현	배주용	서화영	송호근	안영근

‘엄기섭 장학금’ 수혜 학생 감사 메시지

“사랑으로 남기신 뜻, 감사의 마음으로 새깁니다”



1.



김가영
경영대학 경영학과 2학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엄기섭 장학금을 통해 도전할 수 있게 되면서 저의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장학금 수혜 경험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언제나 저희를 지지하시는 선배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박수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3학년

올해 들어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는데 큰 뜻이 담긴 좋은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故 엄기섭 회장님과 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홍지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2학년

평소 존경하던 한진물산의故 엄기섭 회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장학금은 목표를 이룰 기회를 마련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학교에도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엄기섭 장학금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



김채원
국제대학 중국학과 2학년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고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하자는, 입학할 때의 다짐들이 생각납니다. 이 장학금을 동기로, 학업에 대한 무궁한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기회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5.



김지현
컴퓨터시공학부 시학과 3학년

장학금은 제 연구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전문성 개발, 여러 산업 분야의 혁신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박지현
한국어문학과 2학년

저를 추천해 주신 정규식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목표인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인재상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이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습니다. 무모한 꿈일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도 모교에 발전 기금을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OTLIGHT
DONG-A SNS

동아인이 울고 웃었던 바로 그 순간&이슈를 소개합니다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145K subscribers

낭만 가득한 가을 동아대 대동제의 추억
#동아대 #낭만 #대동제 #초대가수 #피크닉
#플리마켓 #동아리 공연




donga_univ

미룬이 챌린지
미루지 말고 이루자
#미룬이챌린지 #대학생
#개강 #갓생러 #목표




donga_univ

뜨거운 여름을 파도처럼 시원하게!
#동아리 #프릭스 #Freaks
#개강총회 #중앙댄스동아리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145K subscribers

궁금하다면 다메이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서포터즈 #무물 #전과 #복수전공 #글로벌대학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145K subscribers

글로벌 맛집 동아대 인터네셔널 데이
#유학생 #전통음식 부스
#외국인 유학생 공연

https://blog.naver.com/donga_pr_bot

스마트하게 교환학생 다녀오는 꿀팁
#교환학생 #교환학생준비
#교환학생꿀팁 #중국교환학생

https://blog.naver.com/donga_pr_bot

학교에서도 홀 스위트 홀 한림생활관 A to Z 알아보기
#기숙사소개 #승학관 #부민관
#구덕관 #사생모집 #선발기준

